

2026년 4월 28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연준 리더십 변화·정책 불확실성: 달러 약세 가능성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후임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 월 미국 검찰은 파월 의장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차기 연준 의장 선임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티리스 의원은 수사가 철회될 때까지 인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수사 철회 소식 이후 티리스 의원은 워시 후보의 인준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됐음을 밝혔고, 5 월 15 일 이전 워시 후보자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주 4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질 수 있으나, 중동발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은 제약되며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긴축 우려로 강화됐던 달러 강세 역시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는 금리 인하와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다소 상충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물가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전망 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AI 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물가 상승 압력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인플레이션 지표로 델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절사평균 PCE 가격지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절사평균(Trimmed Mean) PCE 인플레이션은 급등·급락한 극단값을 제외하고 물가 흐름을 측정하는 지표로, 근원 PCE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할 여지도 존재한다.

물론 연준의 통화정책은 다수 위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교체된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방향이 단기간에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워시 후보자가 금리 정책에 있어 긴축보다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 속에서 증가하는 국채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다.

현재 미국 경제는 AI 투자 사이클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이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통화정책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정적자 확대 기조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지속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미국의 성장세가 견조하고 빅테크 중심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된다면, 건전성 우려로 인해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며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달러의 방향성은 점차 약세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